

*Schwanniomyces castellii*에 의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

성 정 헌 · 고 성 환 · 유 연 우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Direct Alcohol Fermentation of Starch by *Schwanniomyces castellii*

Jeong Heon Seong, Sung Hwan Ko and Yeon Woo Ryu

Department of Biotechnology, College of Engineering, Ajou University,
Suwon 441-749, Korea

ABSTRACT

Alcohol fermentations were carried out to confirm the capacity of ethanol production from glucose, starch and soluble starch (dextrin) by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

Schw. castellii NRRL Y-2477 was able to produce the 63.9 g/l ethanol using 94% substrate from 150 g/l glucose medium. The direct alcohol fermentation of starch having the maximum solubility of 20g/l at 30°C yielded 9.1g/l ethanol upon complete depletion of starch, whereas 34.5g/l ethanol was produced by utilizing 82% of 100g/l soluble starch medium. The fermentation of 150g/l soluble starch produced 52.1g/l ethanol using about 79% of substrate.

Thus, it was found that the limiting step of direct alcohol fermentation of starch by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 was a hydrolysis of starch.

서 론

현재 알콜발효에 의한 주정의 생산공정은 원료인 기질의 준비, 알콜발효, 증류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전분을 이용한 알콜발효에서 전분의 액화-당화공정 없이 전분을 직접 발효시킬 수 있는 공정개발은 ethanol 생성을 위한 원가를 크게 절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모들(yeasts) 중에서 전분을 직접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균주로서는 *Saccharomyces diastaticus*, *Schwanniomyces* spp. 및 *Endomycopsis* (*Saccharomyces*) spp. 등이 있다(1). 이들 중에서 *Schwanniomyces* spp. 는 α -amylase, glucoamylase 및 debranching enzyme인 pullulanase를 생성하므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 매우 적합한 균주라 하겠다(2).

따라서 *Schwanniomyces* spp.를 이용한 전분의 직-

접 알콜발효에서는 3종류의 amylolytic enzymes이 모두 존재하므로 pullulan과 isomaltose를 분해시켜 glucose를 생성할 수 있으며, cell mass yield는 glucose 일때 보다도 전분일 때가 더 높았고 성장속도는 glucose와 전분에서 거의 동일하였으므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 매우 유용한 균주가 될 수 있다(3, 4). 그러나 *Schwanniomyces* spp.을 이용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의 문제점은 이 균주들의 알콜에 대한 내성 및 알콜발효 능력이 *Sacch. cerevisiae* 보다 좋지 못하며 이들이 분비하는 α -amylase의 생성이 glucose에 의하여 catabolite repression을 받는다. 즉 starch나 maltose 존재하에서 induction되는 inducible enzymes (4-8)인 반면 glucose 농도가 0.1g/l 이상이면 α -amylase와 glucoamylase는 catabolite repression에 의하여 생성이 억제되며, 이때 α -amylase의 생성이 glucoamy-

lase 보다 더 크게 억제된다(4, 5, 7). 또한 *Schwanniomyces* spp. 의 amyloytic enzymes 은 산소결핍 상태에서는 enzymes 의 합성이 억제되고 통기에 의하여 생성이 증가된다(7, 9).

주정공업에서 실제 요구되는 ethanol 의 농도는 최소한 80g/l 이상이 되어야 종류에 의한 회수공정에서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Schwanniomyces* spp. 에 의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는 전분의 분해 제한조건과 균주의 알콜에 대한 내성이 좋지 못하여 현재까지는 80g/l의 ethanol 농도를 얻었다는 보고는 없는데, 이는 *Schwanniomyces* spp. 가 47g/l ethanol 농도에서 ethanol 생성 및 세포성장이 억제를 받으며 (4), 생성된 ethanol 에 의하여 non-competitive type 으로 amyloytic enzymes 의 활성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α -amylase 와 glucoamylase 는 각각 16g/l 와 40g/l 의 ethanol 농도에서 enzymes 합성이 크게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hwanniomyces* spp. 중에서 amyloytic enzymes 의 생성과 전분의 직접 알콜 발효 및 ethanol 에 대한 내성능력이 우수한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 를 이용하여 이 균주에 대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 능력 및 발효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배지조성

본 연구에서는 amyloytic enzymes 의 생성능력 및 알콜발효 능력이 우수한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 를 이용하였다.

균주 보관용 사면배지는 2% glucose, 1% yeast extract, 1% peptone 및 1.5% agar 가 포함된 slant 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lant 에 균을 접종시켜 incubator 에서 30°C로 24시간 배양한 후 4°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며 3주마다 동일한 배지조성의 slant 에 옮겨주었다.

접종용 균주의 배양은 300ml 삼각 flask 에 2% glucose, 1% yeast extract 및 1% peptone 이 포함된 배지 50ml 을 첨가하여 멸균한 후 균을 접종하여 30°C에서 16시간 동안 150rpm 으로 진탕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배양 및 발효를 위한 접종용 균주의 양은 5% (v/v) 로 하였다. 발효배지는 0.5% yeast extract, 0.5% peptone, 0.5% KH₂PO₄, 0.2% (NH₄)₂SO₄ 및 0.04% MgSO₄. 7H₂O 에 발효조건에 따라 15% glucose, 2% starch 및 10% 와 15% 의

soluble starch (dextrin) 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알콜발효

알콜발효는 2.5L Jar Fermentor (한국발효기)에 배지 1.5L 을 넣고 30°C에서 300rpm 으로 교반하면서 수행하였다. 또한 발효조건중에서 0.05VVM 으로 통기시킨 경우와 통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연구 및 pH 조절을 위한 CaCO₃ 첨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

환원당의 정량은 DNS 방법(11)에 의하여 측정하였고, 총당의 정량은 Anthrone 법(12) 및 환원당 정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상등액을 준비하여 상등액 2ml 에 1N HCl 1ml 을 가하여 잘 섞은 다음 100°C 항온수조에서 60min 간 끓이면서 산가수분해시킨 후 1N NaOH 1ml 을 가하여 중화시켰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용액 1ml 에 DNS 시약 1ml 을 가하여 환원당 정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총당을 정량하였다. 배양액중의 ethanol 농도는 n-butanol 을 internal standard 로 하여 gas chromatography (Hitachi Model 263-30, Japan) 로 측정하였다. 균수는 현미경하에서 hemacytometer 를 이용하여 counting 하였다.

결과 및 고찰

Glucose 의 알콜발효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 의 알콜발효 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150g/l의 glucose 가 포함된 발효배지를 이용하여 pH 조절없이 알콜발효를 수행한 결과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48시간 발효 후 94% 의 glucose 를 소모하면서 63.9g/l 의 ethanol 를 생성하였으며, 이때의 ethanol yield 는 0.45g-ethanol/g-glucose 로서 이론값의 88%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알콜발효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 보다는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전분의 최대 농도인 20g/l를 이용하여 알콜발효를 수행한 결과 Fig. 2 와 같다. 통기의 경우에는 20g/l의 전분이 거의 모두 소모되었으나 단지 1.0×10⁹ cell/ml 정도의 세포성장만이 이루어지고 ethanol 생성은 거의 없었다. 이는 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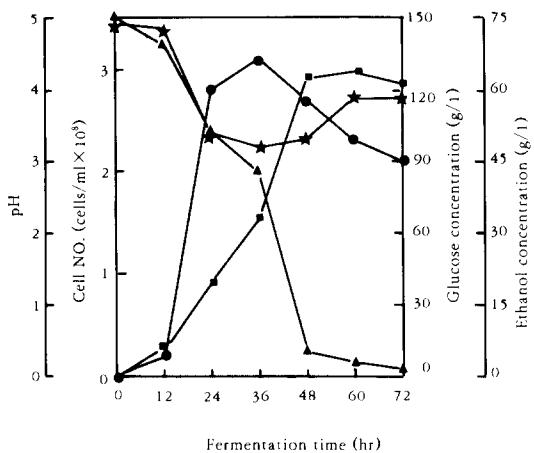


Fig. 1. Profiles of cell growth (●), ethanol production (■), pH change (★) and sugar consumption (▲) during the batch fermentation of 150g/l glucose by *Schw. castellii* NRRL Y-2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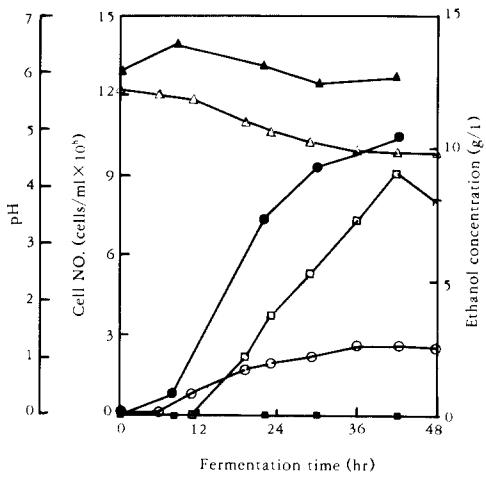


Fig. 2. Profiles of cell growth (○, ●), ethanol production (□, ■), and pH change (△, ▲) during the batch fermentation of 20g/l starch by *Schw. castellii* NRRL Y-2477 under anaerobic (○, □, △) and aerobic (●, ■, ▲) conditions.

원의 제한조건에서 산소가 존재하므로 효모의 호기성 대사에 의하여 ethanol 생성없이 세포성장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통기를 하지 않은 경

우는 12시간 배양 이후부터 ethanol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42시간 배양했을 때 전분을 모두 소모하면서 9.1g/l의 ethanol을 생성하였으며, ethanol yield는 0.45g-ethanol/g-starch로서 이론값의 88%였다. 이때 발효초기 12시간까지 ethanol 생성이 없었던 것은 이미 배지 용액내에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Schw. castellii* NRRL Y-2247를 이용한 20g/l 이하의 용해된 전분 기질에서는 통기를 하는 경우 ethanol의 생성없이 균주의 성장만 이루어져 전분을 함유한 식품공업의 폐수로부터 single cell protein의 생성에 이용이 가능하다(13).

Soluble Starch (Dextrin)의 직접 알콜발효

주정용 및 연료용 ethanol 생산을 위해서는 80g/l 이상의 ethanol 농도를 얻어야 하므로 기질의 농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dextrin을 이용하여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를 수행하면서 통기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Fig. 3과 같다. 즉 100g/l의 dextrin이 포함된 발효배지를 발효초기에 넣고 통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0.05VVM으로 통기를 하면서 알콜발효를 수행하였으며 pH 조절을 위하여 0.1% (w/v) CaCO₃를 첨가하고 초기 pH를 5.5로 조정하였다. 실험결과 20g/l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 일때와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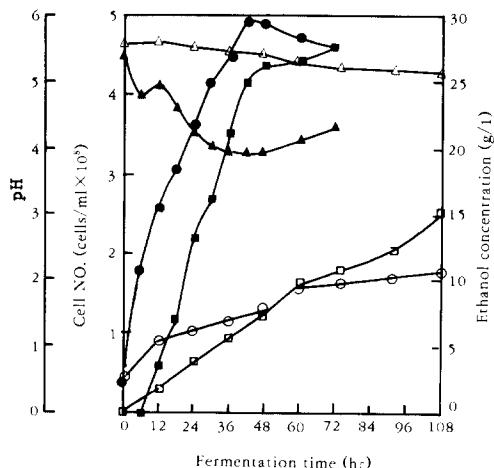


Fig. 3. Profiles of cell growth (○, ●), ethanol production (□, ■) and pH change (△, ▲) during the batch fermentation of 100g/l dextrin by *Schw. castellii* NRRL Y-2477 under anaerobic (○, □, △) and aerobic (●, ■, ▲) conditions.

대로 100g/l dextrin 인 경우에는 통기에 의하여 세포성장과 ethanol 생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즉 통기를 하지 않은 경우 108시간 배양했을 때 세포수가 1.76×10^8 cell/ml 이고 ethanol 농도는 15.2g/l 인 반면 통기인 경우 최대 세포수가 4.91×10^8 cell/ml 로서 2.8배 증가하였으며, ethanol 농도는 72시간 배양했을 때 27.7g/l 로서 1.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양의 탄소원 존재하에서 미량의 산소는 효모의 성장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효모들의 ethanol 에 대한 내성증가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며(14), 또한 통기에 의한 amyloytic enzymes 의 생성증가에 의한 것으로도 추정된다(7, 9). 따라서 높은 ethanol 생산성으로 높은 ethanol 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도 통기가 필수적인 것임을 알았다. 반면 pH 의 감소는 통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통기일 때 보다 적었다.

Schw. castellii NRRL Y-2477 에 의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 발효중에 pH 가 크게 감소하여 pH 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즉 100g/l 의 dextrin 이 포함된 배지를 발효조에 넣고 초기 pH 를 5.8로 맞춘 후 pH 조절없이 0.05VVM 으로 통기하면서 알콜발효를 수행한 결과 Fig. 4 와 같다. 실험결과 최대 세포수 및 ethanol 농도는 1.4×10^8 cell/ml 과 16.5g/l 로서 기질의 약 36% 만이 이용되었으며,

더구나 배지내에는 15g/l 의 환원당이 존재하였다. 이때 배지의 pH 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60시간 발효이후 부터는 4.0 이하로 낮아져 최종 pH 는 3.83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pH 감소가 *Schw. castellii* 에 의한 알콜발효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생성된 amyloytic enzymes 의 불활성화(6, 15)에 의하여 ethanol 생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 등(16)의 *Sacch. diastaticus* 에 의한 액화 potato starch 의 발효에서 pH 를 조절하지 않을 경우 최종 pH 가 2.0까지 낮아지면서 ethanol 생성 및 세포성장이 중단되어 ethanol 농도는 최대 28.4g/l 정도이지만, pH 를 4.2로 조절하는 경우 최종 ethanol 농도를 52.1g/l 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때 *Schwanniomyces* spp. 및 *Sacch. diastaticus* 에 의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 pH 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기산들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 동안에 pH 의 감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배지내에 0.1% (w/v) 의 CaCO₃ 를 첨가하고 초기 pH 를 6.4로 조정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알콜발효를 수행한 결과 Fig. 5 와 같다. 실험결과 CaCO₃ 첨가에 의한 pH 조절은 잘되어 발효동안에 4.5에서 5.0사이를 유지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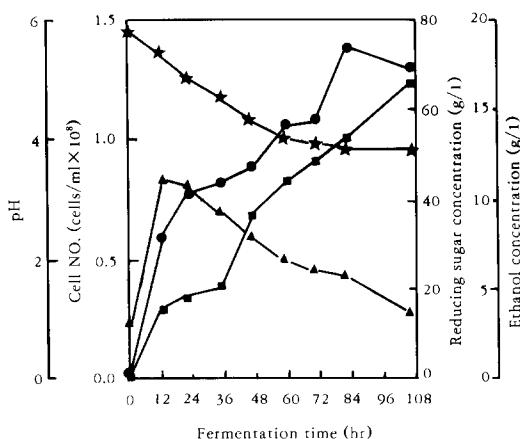


Fig. 4. Profiles of cell growth (●), ethanol production (■), pH change (★) and reducing sugar concentration (▲) during the batch fermentation of 100g/l dextrin by *Schw. castellii* NRRL Y-2247 under non-controlled 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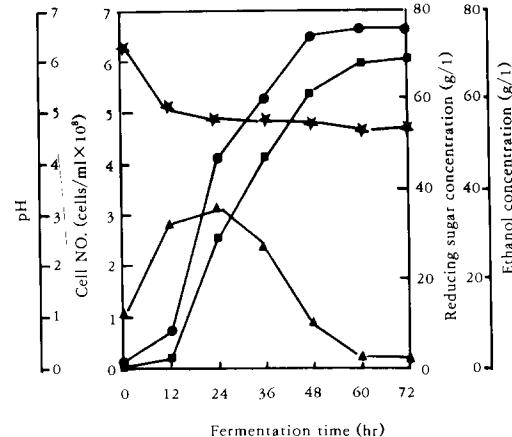


Fig. 5. Profiles of cell growth (●), ethanol production (■), pH change (★) and reducing sugar concentration (▲) during the batch fermentation of 100g/l dextrin by *Schw. castellii* NRRL Y-2247 under pH control by adding 0.1% (w/v) CaCO₃.

또한 세포수 및 ethanol 농도는 72시간 발효후에 6.6×10^8 cell/ml 과 34.5g/l로서 pH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 보다 각각 4.7배와 2.1배 증가하였다. 발효 능력은 기질의 약 82%를 이용하였으며 ethanol yield는 0.43 g-ethanol/g-dextrin으로서 이론값의 84%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Schw. castellii* R-69 (15)에 의한 92.5g/l에서 얻은 ethanol 농도 33.9g/l와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용 기질을 모두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생성된 ethanol에 의하여 amyloytic enzymes의 합성과 활성 억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10), 이는 pH가 4.5이상으로 유지되지만 환원당의 농도는 발효 60시간 이후부터 3g/l 이하로 매우 낮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150g/l dextrin이 포함된 배지에 0.1% (w/v)의 CaCO₃를 첨가하여 초기 pH를 6.0으로 조절한 후 0.05VVM으로 통기하면서 알콜발효를 수행한 결과 Fig. 6과 같다. 실험결과 최대 세포수는 48시간 발효시 4.77×10^8 cell/ml였으며, 최대 ethanol 농도는 72시간 발효시 52.1g/l였다. 이때의 ethanol yield는 0.44 g-ethanol/g-dextrin으로서 이론값의 86%였으며, 기질의 79%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의 윤속단계는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으로 추정되므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를 위해서는 균주의 mutation에 의한 amyloytic enzymes의 합성 및 활성억제가 되지 않는 mutant를 얻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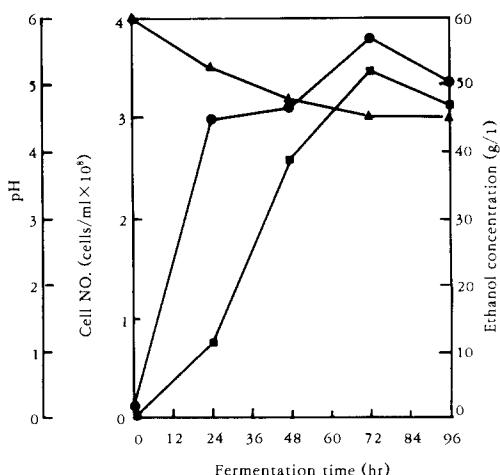


Fig. 6. Profiles of cell growth (●), ethanol production (■), and pH change (▲) during the batch fermentation of 150g/l dextrin by *Schw. castellii* NRRL Y-2477.

요약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에 의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균주의 150g/l glucose에 대한 알콜발효능력은 사용 기질의 94%를 이용하여 ethanol을 63.9g/l를 생성하였으며, 이때의 ethanol yield를 0.45 g-ethanol/g-glucose로서 일반적인 알콜발효 효모인 *Sacch. cerevisiae*보다는 약간 낮았다. 전분이 상온에서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20g/l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는 통기인 경우 ethanol의 생성없이 세포성장만이 이루어졌으며, 통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9.1g/l의 ethanol을 생성하여 ethanol yield는 이론값의 88%를 나타내었다. 반면 100g/l의 dextrin을 이용한 알콜발효에서는 통기에 의하여 ethanol의 생성이 1.8배 증가하였으며, 또한 CaCO₃ 첨가에 의한 pH를 조절한 경우 조절하지 않은 경우 보다 ethanol 생성이 2.1배 증가한 34.5g/l의 농도로서 이때의 기질에 대한 발효능력은 82%이고 ethanol yield는 이론값의 약 84%였다. 또한 150g/l dextrin의 알콜발효에서는 약 79%의 기질을 소모하면서 52.1g/l의 ethanol을 생성하였다.

따라서 *Schwanniomyces castellii* NRRL Y-2477에 의한 전분의 직접 알콜발효에서의 윤속단계는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감사

본 연구는 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문헌

1. A. M. Sills, C. J. Panchal, I. Russell and G. G. Stewart (1987), *CRC Crit. Rev. Biotechnol.*, **5** (2), 105.
2. W. M. Ingledew (1987), *CRC Crit. Rev. Biotechnol.*, **5**(2), 159.
3. A. M. Sills, M. E. Sauder and G. G. Stewart (1983), *Dev. Ind. Microbiol.*, **24**, 295.
4. J. J. Wilson, G. G. Kachatourians and W. M. Ingledew (1982), *Biotechnol. Lett.*, **4**, 333.
5. A. M. Sills and G. G. Stewart (1982), *J. Inst. Brew.*, **88**, 313.

6. A. M. Sills, M. E. Sauder and G. G. Stewart (1984), *J. Inst. Brew.*, **90**, 311.
7. C. V. Lusena, C. C. Champagne and G. B. Calleja (1985), *J. Biochem. Cell. Biol.*, **63**, 366.
8. G. B. Calleja, S. Levy-Rick, C. V. Lusena, A. Nasim and F. Moranelli (1982), *Biotechnol. Lett.*, **4** (8), 534.
9. B. Simoes-Mendes (1984), *Can. J. Microbiol.*, **30**, 1163.
10. M. H. Malfait, G. Moulin and P. Galzy (1986), *J. Ferment. Technol.*, **64**, 279.
11. G. L. Miller (1959), *Anal. Chem.*, **31**, 426.
12. J. Weiner (1978), *J. Inst. Brew.*, **84**, 222.
13. E. Y. Park, D. L. Crawford, R. A. Roger and R. C. Heimsch (1991), *J. Microbiol. Biotechnol.*, **1**(3), 212.
14. Y. W. Ryu and H. W. Jang (1991), *J. Microbiol. Biotechnol.*, **1**(1), 6.
15. M. R. Dhawale and W. M. Ingledew (1983), *Biotechnol. Lett.*, **5**(3), 185.
16. 서정훈, 김영호, 전도연, 이창후 (1986), 한국산업미생물학회지, **14**(4), 311.